

SND 인도 관구간 양성 회의



“종으신 하느님만이 우리를 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성녀 줄리, 서한 256.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다 잘 이루어집니다.” 마리아 알로이시아 수녀

인도의 SND 양성 담당자들이 2025 년 8 월 20 일부터 21 일까지 방갈로르 노틀담 관구 본원에 모여 양성 경험과 최고의 실행을 공유하는 연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유기 서원 수녀와 종레반 양성을 담당하는 총참사회의 메리 카루나 수녀가 이 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카루나 수녀는 숙고적인 질문들을 보내주었고, 이를 통해 나눔과 토론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첫날은 양성을 담당하는 모든 수녀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방갈로르의 성모 방문 관구 관구장 메리 체타나 수녀가 양성 담당자들을 환영하고, 의사이자 심리학자, 양성자, 그리고 훈련가인 콘라드 노로냐 신부를 담당자로 소개했습니다. 콘라드 신부의 세션은 "성소 식별, 양성 단계별 평가 도구, 오늘날의 양성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신부는 "성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들로 이 주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격이란 각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사고, 감정, 행동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격 평가는 자기 이해, 팀워크, 임상적 통찰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메리 카루나 수녀가 오후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다양한 양성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과 가졌던 체험들, 생명을 부여하고, 힘을 주면서도, 도전적인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양성 중인 여성들의 삶에서 영으로 충만한 식별력과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성장, 행복, 그리고 영적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리 카루나 수녀는 수도회 양성 계획에 명시된 핵심 요소들을 충실히 지켜 나가는 동시에 오늘날의 양성 과정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기 및 지속적인 양성 과정에서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성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참가자들은 바네르가타 생태공원으로 즐거운 나들이를 갔습니다. 점심 식사, 나비 공원 방문, 그리고 가이드와 함께하는 사파리 투어가 포함되어 기쁨과 유대감, 그리고 재충전으로 가득한 경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모임을 세심하게 계획해 준 메리 체타나 수녀와 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따뜻한 환대에 대해 본원 공동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여정을 걸어주신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